

# 2021년 통일기반구축사업 결과보고서

## 지역학으로서의 북한 문학 연구 (1) : 황해도와 해주

한국어문학연구소

### 2021년 통일기반구축 사업 결과보고서

#### 1. 사업 배경

-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2. 사업내용

- 사업 추진 내용
- 일정별 추진 사항
- 참여 인력

#### 3. 사업 성과

- 『황해도 산문집(가제)』(예육, 2022) 2022년 2월 출간 예정
- 『해주 인력시장』(예육, 2022) 2022년 2월 출간 예정
- 관련분야 기여도
- 기대효과

#### 4. 예산

- 예산계획
- 실제 예산집행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향후 계획
- 건의사항

#### 6. 성과 관련 지표

# 한국어문학연구소

## 1. 사업 배경

### □ 개요

- 사업명: 지역학으로서의 북한 문학 연구 (1) - 황해도와 해주
- 기관명: 한국어문학연구소

### □ 추진 배경 및 목적

#### ○ 추진배경

- 본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인문학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국 문학 연구 방법의 하나로 지역학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황해도'라는 역사·문화적 장소를 매개 삼아 북한 지역의 문화/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 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팀은 2016년 이래로 '통일'과 '평화', '북한 문학' 등의 키워드 하에 연결성을 띤 연구 사업을 이어왔는데, '지역학으로서의 북한 문학 연구 (1) - 황해도와 해주' 역시 그러한 작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진 현시점에서 과거의 문학에 황해도 지역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가를 탐사, 연구하는 작업은 남북 간의 정서적 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사업에서는 해주, 신천, 은율, 연안 등 황해도의 지역적 성격을 근대 문인들의 산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을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인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학적 관점을 토대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한국현대 문학 연구의 장을 형성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 이동('탈북')의 경험을 지닌 문인들의 창작 작업을 통해 한국 문학장의 성격을 재구성하고,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 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창작과 학술 분야에서 북한 지역을 묘사한 작품에 대한 접근 경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 목적

- '평화'를 기반으로 한 '통일'의 사회적 의미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 확산

-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는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탈북' 문학인들의 체험을 기반으로 창작 작품집을 출간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 지역과 관련한 과거 문인들의 작품 및 다양한 서지 자료들을 발굴, 정리하고 이를 아카이브화하는 작업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전문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연구의 장을 열게 하고, 우리 사회 전체에는 통일 이후의 삶을 모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담론 장을 마련하는 데 일조한다는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2021년도 사업 역시 앞선 사업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통일'과 '평화'라는 키워드 하에 지역학적 문학 연구에 보탬이 될 자료를 확보해내는 것은 물론, 결과물을 단행본 형태로 출간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였다.
- 황해도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단행본을 출간하는 작업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평화 및 통일의 의의를 재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학적 연구의 인문학적 지향성을 사회 전반에 알릴 수 있을 것이다.
- 이데올로기 중심의 북한 연구 담론장의 방향을 지역학적 관점으로 전환
- 선행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염두에 두며, 북한문학 연구의 방향을 정책적 연구가 아니라 지역학적 연구로 전환한다.
- 일제강점기 북쪽 지역을 다룬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지역들이 어떠한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문학 및 문학인들과 관계 맺는가를 분석한다.
- 본 사업을 통해 '북한'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삼은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구체적 결과물을 획득하고자 한다.
- 문학을 매개로 북한 지역에 대한 대중적 이해 촉진 및 확산
- 한반도 문화, 역사의 주요 지역이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북한 지역인 '황해도'를 테마로 하여, 북한 지역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창작집 및 산문집 등을 출간함으로써 북쪽의 지역적 특이성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북'이라는 공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유발하고, 과거의 산문과 오늘날의 소설을 통해 북한지역을 살펴봄으로써, 단절적 인식을 극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사업 내용

### □ 사업 추진 내용

- 황해도 지역에 대한 역사적 산문들을 모은 ‘산문집’ 발간
  - 일제강점기 발표된 산문들을 주요 검토 대상으로 삼아 황해도의 지역적 특성이 당시 산문들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 일제강점기 매체들(『개벽』, 『삼천리』, 『문장』 등 잡지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등 신문)에 게재된 다양한 글들을 폭넓게 살펴봄으로써, 해당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는 산문 중에도 특히 흥미로운 작품들을 선별하여 대중 독자 대상 단행본으로 편집해 출간하고자 하였다.
- 황해도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 ‘창작집’ 발간
  - 북한의 지역적 특성과 삶의 조화가 잘 드러나는 창작 작품을 공동 창작집으로 묶어낸 것으로, 황해도 지역의 역사, 지리, 물산, 문화 등이 녹아든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 ‘탈북’이라 불리는 이동의 경험을 지닌 작가들의 작품 창작을 통해 현대 북한 사회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의 문학적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 일정별 추진 사항

일 정	추진 내용
2021.03.~2021.04.	-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방법 탐색
2021.05.~2021.06.	- ‘공동 창작 소설집’ 참여 작가들에게 원고 청탁
2021.05.~2021.08.	- 자료 수집 및 주제에 따른 분류
2021.06.~2021.10.	- 연구 대상 확정 및 단행본 출간 준비
2021.10.~2022.01	- 자료 입력 및 번역 - 게재 자료 확정
2021.10.~2022.01.	- ‘공동 창작 소설집’ 완성된 작품 취합 - ‘공동 창작 소설집’ 작품 검토 및 발문 작성
2022.01.	- 원고 교정
2022.02.	- 『해주 인력시장』(예옥, 2022) 출간 예정 - 『황해도 산문집(가제)』(예옥, 2022) 출간 예정

### □ 참여 인력

#### ○ 책임자

성 명	대 학	학 과	직 급
방민호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연구소(원)	구 내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한국어문학연구소	02) 880-9095		

#### ○ 주요 참여 인력

성 명	소 속	직 급	
방민호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민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이가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3. 사업 성과

### □ 『황해도 산문집(가제)』(예옥, 2022) 2022년 2월 출간 예정

- 황해도는 한반도의 문화, 역사적 의미를 돌아볼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주요 지역 중 하나로, 이미륵, 최재서 등의 작가들 및 안중근, 김구 등의 독립운동가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역사적 공간이다. 특히 이번 산문집에서는 일제강점기 문인, 언론인 등이 남긴 다양한 형식의 기행문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고 있었던 일제강점기 황해도의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이광수, 강경애, 박화성 등이 남긴 산문과 다양한 시각에서 황해도 곳곳을 묘사한 기행문들(『海西雜記(해서잡기)』, 『海西紀行(해서기행)』 등의 연재물)을 담았으며, 2022년 2월 출간을 위해 선별한 자료를 검토, 편집 중인 상태다.

□ 『해주 인력시장』(예옥, 2022) 2022년 2월 출간 예정

- 본 연구소는 2015년 『국경을 넘는 그림자』와 2016년 『금덩이 이야기』, 2017년 『꼬리 없는 소』, 2018년 『단군릉 이야기』 등 ‘남북 작가 공동 소설집’을 출간해 왔으며, 2020년 『원산에서 철원까지』, 2021년 『신의주에서 개성까지』와 같이 ‘탈북 작가 공동 소설집’을 출간해 왔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은 ‘탈북’과 같은 이동의 경험을 지닌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통해 현대 북한의 모습을 진솔하게 알리고, 대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2021년에는 소설집 『해주 인력시장』을 출간함으로써, 탈북 작가들의 문학 창작 증진을 도모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문학 작품을 통해 북한 현실 및 지역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21년 연구 사업의 성과물인 소설집 『해주 인력시장』(도서출판 ‘예옥’, 2022년 2월 발간 예정)에서는 황해도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소개함으로써, 오늘날 북한 사회의 현실적 기반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소재 및 주제의식 등을 선보이고 있는 소설들은 소위 ‘탈북’이라 일컬어지는 이동의 경험을 지닌 문학인들의 문제의식을 담아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김주성, 설송아, 도명학, 이지명 탈북작가 4인의 소설 총 4편을 수록하였다. 본 보조연구원 이가은의 해설이 같이 수록되어 있다.
- 참여 작가들은 아래와 같다.

	
<p>작가 김주성은 2008년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전 북한자유연맹 대표이사이며, 현 한국소설가협회 회원이다. 『한국이 낮설어질 때 서점에 갑니다』를 썼다.</p>	<p>작가 설송아는 2011년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진옥이», 「제대 군인」 등의 작품 발표했으며, 북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p>
	
<p>작가 도명학은 조선작가동맹 소속 시인으로 활동하다 반체제혐의로 투옥, 2006년 출옥 이후 한국에 입국했다. 시, 소설, 에세이 등을 다수 발표했다.</p>	<p>작가 이지명은 2008년 장편소설 『삶은 어디에』로 등단하였다. 이 작품은 2009년 KBS한민족방송 라디오극장 드라마로 각색되어 방송되었다.</p>

- 『해주 인력시장』 목차와 수록 작품의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제목	저자
1	조개 전쟁	김주성
2	해주 인력시장	설송아

3	황해도 데미지	도명학
4	엄마의 과거	이지명
5	황해도라는 지역, 황해도의 사람, 이로써 황해도의 삶	이가은

- 김주성, 「조개 전쟁」: 황해도 연안군에서 조개를 양식하여 외화를 벌어들일 계획을 세웠던 주인공은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고 남한으로 떠나오게 된다.
- 설송아, 「해주 인력시장」: 동림 감옥에서 만났던 은인을 찾기 위해 황해도 해주 인력시장에 간 주인공이 그곳에서 바다를 독점한 무역 회사와 일용직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목격한다.
- 도명학, 「황해도 데미지」: 골동품 거간꾼인 주인공은 황해도 해주에서 진귀한 골동품을 구하지만, 경찰의 급습과 소매치기로 모두 잃어버린다.
- 이지명, 「엄마의 과거」: 황해도에서 함경북도로 시집간 주인공은 ‘땡해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다.

○ 2월 발간 예정인 『해주 인력시장』의 결과물은 2021년 한국어문학연구소 통일기반구축사업의 대표 실적이며 현재 편집본이 완성된 상태다.

『해주인력시장』의 내표지	『해주인력시장』의 목차

□ 관련분야 기여도

- 본 사업은 황해도 지역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학으로서의 북한 문학 연구’의 방향성을 고찰하고, 한국 근현대문학사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또한, 본 사업의 참여 인력들은 관련 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여하여 한국 현대문학 연구장에 ‘지역학으로서의 북한 문학 연구’라는 화두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계획단계에서의 과제구성 및 진행의 적절성,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 한반도 평화에 관한 전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문학 연구 차원에서 북한문학 자료를 다룰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본 사업은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 특히 황해도와 해주는 한국 문학, 문화, 운동사의 주요 역사적 장소이기 때문에, ‘지역학으로서의 북한문학 연구’의 첫 번째 검토 사례로서 적절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었다.
- 사업의 효율성
  - ※ 사업의 효율성: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 정도
    - 황해도와 해주라는 지역적 소재를 중심으로 두 권의 단행본을 출간할 수 있었다.
    - 황해도 지역과 관련한 문학 자료들을 선별하여 출간함으로써 지역학적 북한 문학 연구자들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 ‘탈북’의 경험을 지닌 작가들의 참여로 황해도 지역을 소재로 한 창작 소설집을 출간함으로써 북한의 사회상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 사업의 영향력
  - ※ 사업이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효과 평가
    - 황해도와 해주는 한국 문학, 문화, 운동사의 주요 역사적 장소로, 본 연구 사업을 통해 지역학적 문학 연구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으며, 근대 민족운동의 발상지로서 황해도가 지닌 특이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 사업의 발전가능성

- 본 연구 사업은 2016부터 2021년까지 평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연결성을 지닌 채 이어져 온 것으로, 특히 '탈북'이라 불리는 이동의 경험을 지닌 문인들의 참여로 출간될 수 있었던 창작 소설집을 연간으로 발행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에 대한 문학적 접근 방식을 도모할 수 있었다.

- 향후에도 이러한 사업을 이어감으로써, '통일' 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방향성을 인문학적 차원에서 그려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본 사업의 결과물 중 하나인 『해주 인력시장』(예옥, 2022) 출간과 관련하여, 계획 당시에는 소설 7편을 수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상황 발생 및 참여 작가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4편의 소설만 게재하게 되었다.

□ 향후 계획

※ 향후에도 본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 사업을 확장·변경·발전시킬 것에 대한 잠재적인 계획을 작성

○ 본 연구소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하였던 사업이 '제1기'에 해당한다면, 2021년에 시행한 본 사업은 '제2기' 작업의 일환으로 '황해도(해주)'를 대상으로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학으로서의 북한 문학"이라는 담론장을 보다 구체화하여 형성하고자 함.

□ 건의사항

※ 사업의 진행,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하여 통일평화연구원 혹은 학교 본부에게 전달할 건의 사항을 기재

○ (내용 입력)

6. 성과 관련 지표

□ 대표 사업 실적

- 황해도 테마 소설집 단행본 출판(2022.02 출간예정) 『해주 인력시장』
- 황해도 테마 산문집 단행본 출판(2022.02 출간예정) 『황해도 산문집』